



김제 만경 능제저수지, 무료 보트체험 행사 가져

만경읍 지평선마린리조트(대표 배준성)에서는 지난달 29일 만경을마리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능제저수지에서 무료 보트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2021년 보트조종면허 시험장 및 수상레저 사업 확장을 위해 김제 지평선마린리조트로 새롭게 단장한 이후 지역주민들에게 비단물이 아닌 물줄에서도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알리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보트 무료체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보트체험에 참가한 주민들과 학생들은 지평선마린리조트가 가까이 있어서도 수상레저를 즐기는 곳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금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지역 가끼아이 능제저수지 구석구석을 누비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보트를 타게되어 너무도 행복했다며 외부인들에게도 많이 알려 우리지역의 명소로 알리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지평선마린리조트 보트 무료체험에 참여한 읍민과 관광객들은 오랜여행에 달해 평범적인 후원이 있었으며 지평선마린리조트 배준성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만경 능제저수지는 담수호로 1980년 동진농조(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축조하였으며 능제는 99개의 귀를 가진 특이한 저수지로 유명하며 저수지 주변으로 수초가 풍부하여 낚시터로 각광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창경찰, 영예로운 승진임용식 개최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1일 각 과장·동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예로운 승진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임용식 주인공은 5월 1일 경찰서에서 경위으로 승진하는 경무계 이지선 경위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하는 여성수사팀 박여혁 경사이다. 이날 동료 직원들이 참석하여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사진 촬영 및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의미 있는 승진임용식을 진행했다.

이지선 경위, 박여혁 경사는 “함께 근무하는 많은 동료 여러분이 축하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초심을 잊지 않고 주어진 업무에 더욱더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현 경찰서장은 승진 경찰관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한 계급 승진한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이 되어 달라고”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햇살마루, 진안 성수면 주민 한방의료봉사 진행

사단법인 햇살마루는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한국농어촌공사 주관하는 ‘2023년도 농촌재능나눔 일번단체활동지원사업’ 일환으로 진안군 성수면에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봉사를 진행했다.

한의사와 간호사, 원광대 간호학과 학생 등 25명으로 구성된 봉사팀은 침, 부황을 비롯한 저주과 온열기 치료 순으로 정성을 다해 지역주민 등의 건강을 세심히 살폈다. 그리고 치료를 마친 주민들을 위해 기능성이 첨가된 물과 패스 2 종류 등 물품을 제공했다.

성수면행정복지센터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나와 어르신을 함께 맞이하고 행사를 도왔다.

최수연 성수면장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지역주민의 건강 돌봄과 상담등 지역주민 건강관리 지도를 해준 (사)햇살마루 의료봉사단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주민들의 편의 여건 조성과 건강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알림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 제17회 전국장애인가요제 = 일시: 6일(토) 오후 2시, 장소: 전주 풍남문화광장, 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주관: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WBC복지TV전북방송, 문의: 063-286-6678

“20만 동문 자부심 · 궁지 갖도록 노력”

최병선 전북대 제40대 총동창회장 선출

최병선(62) 전주 최치과 원장이 40대 전북대 학교 총동창회장에 선출됐다.

전북대 동창회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진수당 기인홀에서 대의



사회적 영향력을 아낌없이 발휘해 온 동문들의 발자취에 걸맞게 총동창회 위상을 드높이고 조직력을 강화하겠다”며 “20만 동문 모두가

전북대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궁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정영백 회장(전주·강남 온누리인재병원장)은 “동문 협조 덕분에 후배들에게 따뜻한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동문 간 따뜻한 정을 나누고 모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동창회 △재정 지원도를 굳건히 하는 동창회 △지역에 굳건하게 뿌리내리는 동창회 등 세 가지 중점 추진 사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최병선 회장 취임식은 6월 7일 전북대학교 문화루에서 열린다.

/장은성 기자



군산시 금호로지스, 사랑의 현혈 이웃사랑 실천

군산시 전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금호로지스(대표 이지태) 임직원들이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맞아 사랑의 현혈에 동참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주)금호로지스는 매년 김창봉사, 연탄나눔 봉사 및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사회적 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는 업체다.

업체 임직원들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20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현혈의집 군산센터를 방문해 현혈에 동참했다.

최근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실정에서 (주)금호로지스 임직원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는 생명사랑 실천에 있어서 이웃주민들에게 몸소 귀감이 되고 있다.

(주)금호로지스 이지태 대표는 “사발적으로 현혈에 참여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현혈을 통해 안정적인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준 기자

전북교육청 축구동호회, 장관기 축구대회 우승

전북교육청 축구동호회(단장 박성현)는 지난 4월 29일 안동시 생활체육공원축구장에서 경북교육청 주최로 열린 제23회 교육부장관기 시·도교육청 축구대회에서 1위를 하며, 총 6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 포함 18개 시·도교육청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A조 세종·충북·강원·경남·대구, B조 광주·교육부·충남·대전·경북, C조 전북·서울·전남·인천, D조 제주·경기·울산·부산 4개조로 나눠 예선전을 치렀다.

전북교육청은 서울, 전남, 인천교육청을 차례로 꺾고 조 1위로 8강에 올랐다. 이어진 8강전에서 울산교육청을 4:0으로 꺾고, 준결승전에서도 광주교육청을 4:0으로 이겼다. 이후 결승전은 경남교육청과 맞붙었는데 노진수, 김범준, 박경준 주인공의 연속 득점으로 4:0 대승하며 6전 전승 무실점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전북교육청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교육청의 박경준 선수가 대회 MVP를 수상했고, 주인공 선수는 5골로 득점왕에 오르는 등 주요 상식을 휩쓸었다.

박성현 단장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모든 선수가 부상 없



이 최상의 기량을 펼쳐 총 6회 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둬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1일 오전 축구동호회 임원들을 만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체력훈련과 실력을 갖고 뛰어 전국대회 우승까지 일궈낸 축구동호회 회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남원사회복지관, 웰다잉 · 자기돌봄 교육 프로그램 진행

남원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남원사회복지관은 2023년 지역복지프로그램 사업(황금빛 나의 인생)으로 웰다잉 및 자기 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주민 20명을 대상으로 노년기에 맞게 되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현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은 전문 강사가 매주 월曜일 2시간씩(오후 2시~4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웰다잉과 연명의료결정 제도 이해와 유언장 작성, 장례와 장묘 장기 기증 등의 실제적인 웰다잉 교육과 함께 100세 시대의 노후생활을 위한 자기 돌봄의 건강한 습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

정경아 남원사회복지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원 국사모,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기금 기탁

남원시는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국사모, 회장 안종숙)에서 지난 1일에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춘향장학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종숙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꾫꼿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희망의 인재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이에 장학재단 최경식 이사장은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 to 전하여, “춘향장학재단이 지역사회와 함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대한이산묘종친회 대제 봉행

대한이산묘봉천회(이사장 이병기)는 5월 1일 지역 유립과 후손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제를 봉행했다.

이산묘는 진안군 일대의 유생들이 연제 송병선 선생과의 병장 면암 최익현 선생의 뜻을 기리고자 1925년 건립되었으며, 임금 4위를 배양한 회덕전과 조선의 명현 41위를 배양한 영모사, 한발 의사, 열사, 우국지사 34위를 배양한 영광사가 있다.

이날 대제는 이준기 전주이씨대제봉천회장과 전북지역 유립과 후손들 9명의 현관들이 참여하여 회덕전, 영모사, 영광사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이병기 대한이산묘봉천회 이사장은 “순국지사 연재 송병선 선생과 의병장 면암 최익현 선생의 국립유산으로 긍지를 높이고 나라사랑 정신을 힘양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임실군기초푸드뱅크, 기부식품 제공사업 협약식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관장 한갑수)이 임실군으로부터 위탁받아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임실군기초푸드뱅크가 지난달 25일 ‘파리비페드 임실점’과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파리비페드 임실점은 2022년 1년여간 1,591만800원(5,212개)의 빵을 기부했으며, 올해에도 끊임없이 빵 기부를 지속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임실군기초푸드뱅크는 파리비페드 임실점의 꾸준한 기부 활동을 알리고 2023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됐다.

한갑수 관장은 “기초푸드뱅크는 지역 내·외 기부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며 “앞으로도 임실군 기초푸드뱅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원활한 식생활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알리고, 새로운 기부처를 발굴하여 지역민 모두가 식생활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총영기자